

10장 하늘과 땅의 창조주

?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왜 지으셨는가?

삼위 하나님은 재료 없이 뜻과 말씀만으로 세계를 지으셨기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근본부터 다르다. 세상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필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 천사는 몸 없는 섬기는 영으로, 그 존재의 근거는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며 숭배 대상이 아니다. 창세기 1장은 신화가 아닌 역사이며, 신학과 과학은 한 세계를 보기에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지으신 뒤에도 매 순간 보존하고 함께 일하며 다스리시니, 신자는 감사와 소망을 얻는다.

용어 먼저

무로부터의 창조	재료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가 생김
유출설	세계가 신의 존재에서 흘러나왔다는 생각
범신론	하나님과 세계를 하나로 보는 입장
나심	성부가 영원히 성자께 자기 전부를 전함
로고스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는 말씀이신 성자
섭리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협력·통치하시는 일
수호천사	개인이나 나라를 맡은 천사가 있다는 주장

구조도 ·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핵심 주장

1.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참된 종교가 시작된다.
2. '무로부터'는 재료만 없다는 뜻이며 세계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3. 성부가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지으셨기에 창조에는 삼위의 흔적이 있다.
4.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했고,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다.
5. 세상은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지어졌고, 창조 전 질문은 헛되다.
6.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나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
7. 교회는 특정 우주론에 매이지 않으며, 진짜 쟁점은 과학이 답 못 하는 기원이다.
8. 섭리는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붙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다.

성경 근거

롬 11:36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분께 돌아감
히 11:3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음
골 1:16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됨
계 4:11	세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함
히 1:14	천사는 왕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섬기는 영
계 22:9	천사는 동료 종으로서 경배를 거절함
창 1:31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음

오해 → 바른 이해

× 세계는 영원한 물질로 신이 빚은 것이다	✓ 재료 없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
× 창세기 1장은 바빌론 신화를 베낀 것이다	✓ 창세기는 철저히 유일신적이며 신들의 기원이 없다
× 모든 사람과 나라에는 수호 천사가 있다	✓ 성경에 근거 없고 천사는 섬기는 영일 뿐이다
× 하나님은 지으신 뒤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	✓ 매 순간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죄와 고난도 주권 아래 둔다

“삼위 하나님이 뜻과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세계와 천사”

☺ 나는 세상을 우연의 산물로 보는가, 아버지의 작품으로 보는가? ☹ 불안할 때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고 있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